

농장탐방

파주시 흠할사료(주)가 추천한 연보람 목장

“재미게 이하니
쓰르
소들도 신나해요”

전국 산유량 1위 연보람 목장의
‘해피낙농’ 이야기

기획 취재 오세진

“김치 먹고 뽕송뽕송한 곳에서 잘래요? 불고기 먹고 질척한 곳에서 잘래요?”

5년 연속 전국 산유량 1위를 차지한 비법을 묻자, 연보람 목장(경기도 김포시 통진면)의 연덕흠(39) 대표가 반문한다.

“그야 자는 시간이 더 기니까 아무래도 뽕송뽕송한 곳에서...”

“그래서 바닥관리 등 환경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는 빨리 쓰러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사바닥은 소가 항상 편안하게 누워 반추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돼야 해요. 소가 빨리 앉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이죠. 소가 서 있는 상태에서 7-8회 반추하는데 반해 앉아서는 10회 이상 반추하게 되니 소화율을 70%까지 높일 수 있어요. 저 소들 좀 보세요.”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편안히 앉아 되새김질하는 소가 보인다.

연보람 목장의 우사 바닥은 톱밥으로 깨끗하게, 더위는 시원한 샤워시설로 관리되고 있었다.

“톱밥은 얼마의 간격을 두고 갈아 주나요?”

“음.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1달, 1분기,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하루에 한번이 될 수도 있어요. 바닥상태를 습관적으로 봐야 해요. 한번은 진눈깨비가 내려 바로 그날 다시 갈아 준 적도 있어요.”

‘습관적으로’라는 말에서 그의 경영 비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소도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소가 늘 앉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서성대면 그 소는 몸이 좋지 않든지, 발정이 왔든지, 여하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의 경쟁력은 바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다.

축사 바로 옆에 지은 집에는 사방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틈날 때마다 내다보기 위해서란다. 화장실에 가다가도, 전화를 받으면서도 소들을 바라본다.

사료는 조금씩 자주 부어주고(취재 중에도 잊지 않았다),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기 전 5분 더 소들과 눈인사를 하니 소들도 잘못될 틈이 없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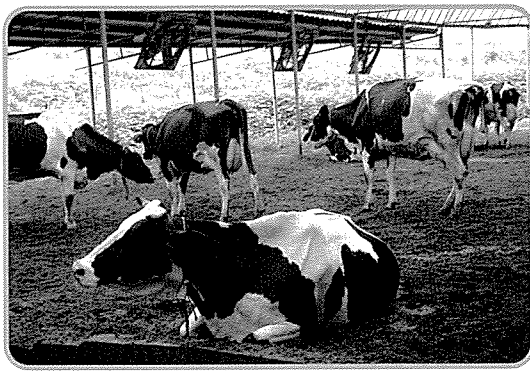
이런 관심은 착유우 3두로 시작한 목장을 870평 규모에 착유우 25두, 건유우 4두, 초임우 9두, 송아지 및 육성우 17두로 발전시켰다.

이뿐 아니라 체세포수 1급, 세균수 1급, 유지방 3.9~4.0%, 평균유량 45kg이라는 전국 최고의 성적을 자랑하는 목장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집 한 쪽 벽면에는 ‘2003년 한국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1위 상을 비롯해 우수농가를 입증하는 각종 상장과 상패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연보람 목장은 이와함께 4년 전부터 사료도 제조해 파주, 김포, 강화 등의 농가 40여 군데에 공급하고 있다.

“자가배합 하러니 조사료 창고, 배합기 등 생산비가 더 많이 들고 차 단위로 조사료를 들여오면 상해서 버리는 것도 많았죠. 사료 쌓아 놓을 공간에 소 1마리라도 더 키우는게 낫죠. 생각 끝에 목장 맞춤형



▲ 뽕송뽕송한 톱밥 위에 앉아 반추하고 있는 소.

사료를 만들기로 했어요. 파주시 혼합사료(주)에 프로그램을 주면 알맞게 배합해 포장해서 가져와요. 우리 사료는 비타민, 미네랄 등이 강화된 것이 특이죠.”

84년 김포종교 축산과에 입학, 2학년때 농장에 취직하며 젖소와 인연을 맺게 된 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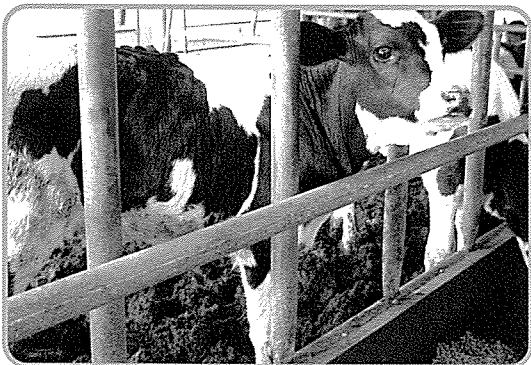
목부로 일한 7년, 헬퍼로 3년, 동생들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1천만원으로 목장을 직접 경영하기까지 어려움이 왜 없었겠느냐는 단 한번도 후회해 본적이 없다고 한다.

94년 서울우유에 납유를 시작하며 한창 신바람이 날 무렵, 96년에 브루셀라 백신을 맞은 소가 만삭 때마다 폐사해 소 12마리 중 9마리를 잃었다.

망연자실해서 있는데 폐사 원인이 백신 때문임이 밝혀지며 정부차원에서 용자를 해줘 다시 소를 구입한 적도 있다고 한다.

“낙농이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재밋어요. 지금도 소를 볼 때마다 새롭고 송아지 코를 보면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워요. 낙농이 얼마나 재밋는데요. 힘들다고 생각하며 계속 힘들어지고, 괜찮다고 하면 점점 괜찮아지게 마련이죠. 이 정도도 힘들지 않은 일



▲ 송아지가 낯선 손님을 신기하듯(?) 쳐다보고 있다.



▲ 낙농이 정말 즐겁다는 연덕흠·문영숙 부부

이 어디 있나요?”

본인이 스트레스 없이 재밋게 일할수록, 소가 건강하고 유량도 좋아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짐승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아요. 세심하게 관리하면 그만큼 보답해줘요. 동지들이 낙농업이야 말로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신나게 일하다보면 낙농이야말로 얼마나 쓸쓸한데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제가 밥은 다 산다니까요”라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는다.

투자한 만큼 보람 있는 일이라고 믿기에 그는 김포지역 높은 땅값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사와 1km가량 떨어진 곳에 우사를 신축하고 있었다.

현재 우사는 건축한지 12~13년 돼 시설이 노후하고 하우스 시설로 돼 있어 폭염 관리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수 목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데 시설만 보고는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솔직히 시설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좁은 바운



▲ 철골공사가 진행중인 신축 우사

더리 내에서 시설비를 줄여 최고의 성적을 거뒀으니 앞으로는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겠죠?”

연 대표의 목소리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우사를 신축하는 곳에 가보니 한창 철골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1200평의 대지에 9개 동으로 지을 예정이라는데 일부분은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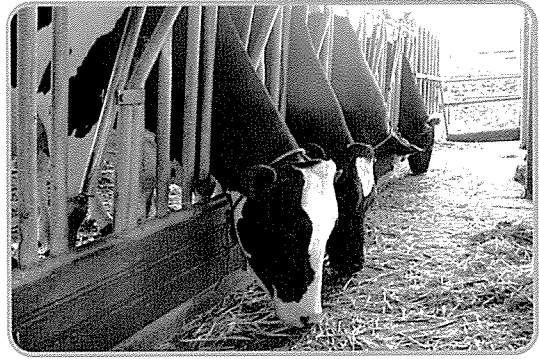
“왜 이 곳에는 철골을 설치하지 않나요?”

“이곳은 ‘소비자 체험장’으로 꾸미려고요. 누구든 도시 근교 목장에 찾아와 젓 짜는 것도 보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먹으며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만큼 남한테 보여주기에, 사랑하는 딸 보람(16)이와 보름(10)이에게 물려주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친환경 목장을 만들어 “목장이 이렇게 깨끗할 수도 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람이는 이미 목장 이름으로 인해 지역의 유명인사(?)가 돼 있고, 보름이는 송아지 우유 주고, 사료 주는 등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 연 대표는 ‘가업’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난다고 한다.

이와함께 신축 우사에는 착유우를, 기존 우사에는



▲ 조금씩, 자주 사료를 먹고 있는 젓소들.

비육우와 한우를 함께 사육해 비육우 80두, 착유우 70두 등 150두 규모의 농장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우사를 신축하는데도 연 대표가 아니면 이루지 못했을 법한(?) 에피소드가 있다.

축사 바로 옆 농지 주인인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가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연 대표가 할머니에게 “축사 못 지으면 저 밥도 못 먹어요”라고 했더니 할머니 왈 “내가 밥은 먹여 줄 수 있지만 축사는 안돼.”

바로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 밥을 먹고, 3일째부터 부인 문영숙(39)씨도 함께 찾아가 밥을 먹으며 계속 부탁했더니 5일째 되는 날 할머니가 허락해 줬다고 한다. 그의 근성과 끈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도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

착유량 1만5000kg을 달성하는 것.

2003년 젓소 한 마리당 착유량 14700kg까지 기록했지만 시설 등 미진한 점이 있어 이후로 조금 주춤했다고 한다.

그의 ‘신바람 낙농’이 또 하나의 신화를 이뤄내길 기대해 본다. ㉟